κόκκος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발행인 강우정
편집주간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02-950-5401
www.bible.ac.kr

성서학과 새내기들의 BRC 수업을 돕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실천하는 14 명의 섬김이들 . (앞줄 왼쪽) 이성민 (2) 이정혁 (3) 서한나 (4) 김수겸 (2) 이예은 (4) 김희정 (3) 박은지 (3) (뒷줄 왼쪽) 김인석 (4) 강태헌 (2) 권산 (2) 이주은 (4) 김대진 (3) 송원복 (2) 김채현 (2)

2018 APR

4

VOL. 193

KBU Story

서관이의 편지

"보고 싶은 책 사 드려요"

제 이름은 **서관**이예요. 성은 **도**씨구요. 이름 예쁘죠?

그런데 전 가슴이 허전해요. 항상 비어 있어요. 자리는 많은데 오는 사람이 적어서요. 350 석이 넘는 자리에 찾아오는 친구들은 하루 평균 450~500 명이지만, 한 시점에는 55~60 명 정도만 앉아있답니다. 얼마 전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카페테리아 음료권까지 준다며 초청했더니 130 명이 다녀갔어요. 그 후론 나를 찾아 주지 않아요. 섭섭해요. 책이라면 보기도 싫은데 거긴 왜 가느냐고요? 아니요. 와서 자도 되요. 편안한 소파도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도 있어요. '와서 게임해도 되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싫어해요. 아빠 이름이 '케이 비 유' 라고 좀 엄해서요.

책은 무지 많아요. 한 15 만권은 되나보아요. 골치 아픈 책만 많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재미있는 책, 요즈음 뜨는 책도 다 있어요. 베스트셀러라나 뭐라나. 그리고 성공 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는 자기 계발서도 거의 다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신학 책이 좀 많아요. 아빠 이름의 비 (B) 자가 Bible B 자 라서요. 그 외에도 학우들의 전공과 관련된 책도 많이 있답니다. 골치 아프니까 전공 책 권수 * 는 아래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휴.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이나 다른 자료 (잡지) 가 있으면 말씀하셔요. 제가 사 드릴게요. 사실 드리는 건 아니고 사서 갖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와서 보셔요. 물론 집에 가져가서 읽으셔도 되고요. 만화책이나 게임은 안 된데요. '교' 씨 성 가진 아저씨가 화내요. (이름은 또 '육부' 가 뭐야)

홈페이지에 제 이름의 간판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도서관 이용안내' 라는 예쁜 방이 따로 있고 거기 '희망자료신청안내' 라는 창이 있어요. 똑똑 두드리시고 '이 책 사줘요' 라고 하면 끝입니다. 물론 1 년 내내 열려 있어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은 이 방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라는 그물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쳐 놓은 것인데 아주 가끔 '이 책은 안 됩니다.' 라고 하시기도 하셔요. 신청하신 책이 들어오면 문자로 '책 도착했어요.' 라고 알려 드립니다. 저 참 착하지요?

그런데 전 이번에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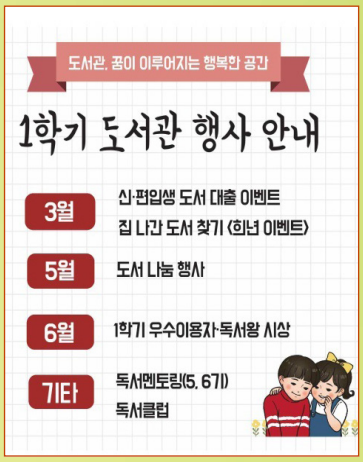
"왜 우리 아이들이 신청한 책은 하나도 없어!"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요.

"학우들이 신청 안 하는 걸 어떡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화만 더 내실 거니까요. 앞으로는 가끔 홈페이지에 '보고 싶은 책 신청 하세요' 라는 팝업창 띄울게요.

그 때 '응답하라.' 잊지 마셔요.

*** 전공별 소장 권수**

신학	24,518 종	43,544 권
사회복지학	4,324 종	8,061 권
영유아보육학	4,600 종	7,664 권
컴퓨터 관련학	2,087 종	2,897 권
간호학	1,958 종	4,540 권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

4 월 대면평가 , 6 월 1 차 발표

강규성 교목실장 , “이제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기도할 때”

▲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자료집

우리대학은『2018 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용「자체진단보고서」를 지난 27 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에 제출했다 . 보고서는 140 페이지에 달하는 기본 보고서와 493 종의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 기본보고서는 대학개황을 짧게 설명하는 부분과 자체진단 결과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자체진단 결과 부분은 발전계획 및 성과 ,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 수업 및 교육과정운영 , 학생지원 , 교육성과 등 5 개 분야에 나누어 지난 3 년 (2015–2017) 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부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60% 대학은 ' 자율개선대학 ' 이라 하여 학생정원을 자율에 맡길 뿐 아니라 연간 30 억 ~60 억의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 반면 하위 40% 대학은 ' 역량강화대학 ' 이라 하여 재정지원도 없으며 정원까지 줄여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한다 . 평가는 또 전국을 5 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우리대학은 소위 일류대학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는 수도권 (서울 , 경기) 에서 경쟁하게 된다 .

이번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4 월 3 째 주간에 우리대학 대표들이 평가자들 앞에 나가 대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 상위 60% 를 선정하는 1 차 결과는 6 월 말쯤 발표된다 . 이 선을 넘지 못한 대학들을 상대로 전국단위로 다시 평가해 약 10% 의 대학을 구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

강규성 교목실장은 지난 26 일 교수 , 교직원 , 학우들에게 보낸 email 을 통해 " 이제는 성서공동체가 ' 자율개선대학 ' 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할 때다 " 라고 말했다 . 그는 " 자체진단보고서가 우리를 떠나 평가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 또 다른 의미는 곧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걸 말한다 .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직 단 한 가지 , ' 자율개선대학 ' 선정에 있다 . 이제 우리의 할 일은 ' 기도 ' 에 의지하는 것만 남아있다 " 며 성서공동체에 기도할 것을 호소하였다 .

학교는 작년 9 월 '2 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 를 위해 김태규 교수 (평가감사실장) 를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30 여명의 교수 , 교직원들로 T/F 팀을 구성 , 준비해 왔다 . 지난 6 개월 동안 팀원들은 휴가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 등을 거의 반납해야 했다 . 일부는 새벽 3 시에 퇴근 , 쪽잠 자고 출근하는 건 기본이고 수 없는 밤을 의자에 앉아 꼴딱 새웠다 . 거듭된 회의와 발표회 등을 통해 상호 토론 , 지적 , 조언을 나누며 보고서 고치기를 반복하였다 . 마지막에는 토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

미니설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8절

김정원 목사(성서학과)

전도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 어떤 목적을 이루기위해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때를 11 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

"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 또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 ".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삶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아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귀중한 것이며 ,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carpe diem 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18 년 FT,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자”

김요한 목사 , 영화에서 말씀 전개로 신선한 감동
영적 복원력 강화의 이요섭 동문 목사 , 깊은 공감 불러

▲ 김요한 목사 (FT 주강사 , 함께하는교회 담임)

2018 학년도 FT 가 12~14 일까지 경기도 양평소재 양수리수양관에서 진행되었다 . 학부재학생과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교수와 직원 및 부설기관이 함께 ' 기도의 해 ' 에 맞춰 새 출발 의지를 다졌다 .

주강사인 김요한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는 영화를 이용한 말씀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 첫째 날 ' 족구왕 '(2014 년 개봉 , 우문기 감독) 영화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 나 자신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자며 평범한 주인공이 족구로 반전을 일으킨다는 내용과 잘 매치시켰다 .

둘째 날 ' 플로렌스 '(2016 년 개봉 , 영국 Stephen Frears 감독) 는 세상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반전을 주님의 이뤄내심과 연계시켰다 . 노래에 재능이 없는 초로의 주인공이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연다는 꿈을 성취하는 이야기에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기도할 때 주가 이끌어 세워주신다는 진리를 접목시켜 감동을 자아냈다 . 김 목사는 성서공동체가 온 맘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배자의 마음 회복을 기도하였다 .

특강에서는 동문 이요섭 (35 회 , 미군 군목) 목사가 영적 복원력 강화의 방안으로 신체 , 지성 , 정서 , 영적의 4 가지를 지적하였다 . 건강한 육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욕망과 능력의 균형 유지 , 영적 독서와 기도하기를 강조했다 . 전자바이올린리스트로 활약중인 해나리 씨의 감성적 공연과 간증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

이 기간 중 총학공동체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됐다 . CCC, 미가엘 , 낙타무릎 , 예학사 , 지구촌문화교류 등 17 개 동아리가 회원모집에 나섰다 . 어린이전도협회에 30 명이 가입해 화제를 불러왔다 . 김동희 (사복 3) 학우는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공동체모습이 감동이라고 말했다 .

‘기도의 해’ 주제로 사흘간 펼쳐진 이번 신앙훈련은 하나총학 임원진과 학회봉사자 및 찬양단의 노고가 큰 역할을 해 주었다 . 차량탑승 전 과정과 예배 인도 및 식사안내 외에 각종 뒤처리 등에서 그들은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었다 . 성서공동체 1,200 명이 참여하였다 .

대학원 , 간호학과 개설감사예배

김조자 교수 “새롭게 쓰임을 받는 변화의 축”

▲ 대학원 간호학과 신설 감사예배를 마치고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조자 교수 , 김현광 대학원장 , 황혜선 신입원우 대표 , 강우정 총장 , 김정숙 간호학과장)

대학원 간호학과 개설감사예배가 9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열렸다 . 김현광 대학원장은 " 간호학과를 개설하는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해 준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간호학과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해가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 " 고 말하였다 .

김조자 (간호학과) 교수가 간호학과 신설로 학교의 정체성과 전공이 상호 보완되면서 주를 섬겨가는 역량이 확장되길 바란다 . ' 영성과 건강 ' 의 과목은 그 산물이라며 간호현장에서 복음전도자로 새롭게 쓰임 받는 변화의 축이 되어달라고 축사하였다 .

강우정 총장이 간호 영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곳이다 . 원우 여러분은 우리의 응답이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돼 줄 것을 염원했다 .

신설한 간호학과는 김정숙 교수가 학과장을 맡는다 . 입학정원은 10 명이며 원우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매주 금요일 강의가 진행된다 .

2018 학년도 힘찬 출발 , “기도의 용장 (勇將) 되자”

강우정 총장 , 「학업은 주업이자 소명」 역설

학부 개강예배

▲ 학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우정 총장

2018 학년도 새 출발을 시작하는 개강예배가 5 일 로고스홀에서 재학생 및 교수와 교직원의 참여로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

강우정 총장이 올해 우리 대학은 ' 기도의 해’ 로 모두 기도의 용장 (勇將) 으로 거듭나야 한다 . 기도는 곧 응답이며 축복을 제공해주는 확실한 통로이다 . 공동체 모두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간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우리에게 학업은 주업이고 소명이다 . 끈기와 악바리 근성으로 자신을 단련하면서 본분인 공부에 힘써 노력하는 학우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에 앞서 강규성 교목실장이 ' 당신의 왕은 누구신가 '(창 1 장) 로 말씀을 전했다 . 창조주는 우주만물을 통치하며 능력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 .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 말씀에 순종할 때 희락과 안녕을 얻게 된다며 왕이신 주님과 새 출발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길 당부하였다 .

진예은 하나총학회장이 재학생 모두 복음과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출발의 새 학기가 되어달라고 간구했다 .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개강을 맞은 학우들 표정은 경쾌해 보였다 . 일부는 도서관에서 학과별 전공도서를 살피며 새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곳곳마다 서로를 반기는 웃음과 목소리로 들썩였다 .

김현광 원장 , " 지성과 지혜를 여호와께 복종시키자 "

대학원 개강예배

대학원 개강예배가 5 일 오후 6 시 갈멜관 305 호에서 개최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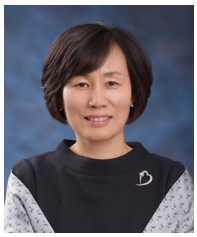
김현광 대학원장이 ‘마음을 다하여 할 일’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행하고 인자와 진리의 모습을 마음 판에 새겨 인격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 자신의 지성과 지혜를 여호와께 복종시키고 의지해 갈 때 인생의 축복까지 임하게 한다며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우정 총장은 권면에서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일꾼양성이 우리의 비전이다 .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삶과 뜻을 지향해가는 밀알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철저한 성서인으로 거듭나주길 강조했다 .

이지성 원우회장이 주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전파하는 복음전도자를 향해 나가자며 기도하였다 .

최우수업적 조윤경 , 최우수강의 최은희 교수

▲ 조윤경 교수



▲ 최은희 교수

2017 학년도 최우수업적상 조윤경 (영보학과장) 교수 , 최우수강의상에 최은희 (간호학과)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돼 기쁨을 누렸다

최우수업적평가는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1 년간 신앙 , 교육 , 연구 , 봉사 4 개 영역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교수 1 인에게 수여된다 . 조윤경 교수는 전 분야에서 우수하였는데 그 중 연구부분 성과가 두드러져 좋은 결과를 낳았다 . 최우수강의는 교수의 수업계획서 , 수업진행 및 강의시간 , 내용 등 14 개 문항 중심으로 학우들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최 교수는 수업계획서와 내용에서 학우들의 만족도가 치솟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

조윤경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 제게 맡겨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을 늘 충성스럽게 해 나가고 싶다 " 고 말했다 . 최은희 교수는 " 쉽지 않은 전공과목을 열심히 배우고 동참해 준 학우들의 공이라며 오늘의 기쁨을 성서공동체 모두와 함께 하겠다 " 고 밝혔다 .

성서 세빛학회 ,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학우들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자”

▲ 임현필 강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부활절 방학일인 29 일 저녁 7 시 천마홀에서 세빛학회 (성서학) 가 주관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 기도회는 찬양을 통해 고난 , 십자가 ,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해가며 점차 고조되었다 . 기도회에 앞서 교목실 임현필 강도사가 ' 그리스도 처럼 '(에 5:2)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임 강도사는 약속된 겸손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따라 행하고 버리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도회는 세빛학회 학회장 전소희 (성서 3) 학우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자는 학회장과 학우들의 뜨거운 간구가 장내에 번져갔다 . 고난주간 맞춰 약함을 드러내고 신앙인의 본질회복도 함께 간구하였다 . 이밖에도 사명자의 본분과 학과 발전 및 비전과 원활한 학업환경 등을 염원하며 의미를 다짐했다 .

70 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하였고 성서대학교회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후원해 주었다 .

사복 MT, 선후배간 친목과 공동체의식 다져

박민수 목사 , “아픔을 나누고 돕기 위해서 선택한 전공”

▲ 눈감고 한발로 오래버티기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

사회복지학과 구성원 간 친목 도모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새 학기 맞이 MT 가 23 일 저녁 6 시 일립관 101 호에서 열렸다 . 학과 담임 박민수 목사가 '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8~13) 로 말씀을 전했다 . 동료에게 죄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 사회복지학과는 " 이웃 아픔을 외면치 않고 나누고 돕기 위해서 선택한 전공 " 이라며 격려하였다 .

선후배 참여의 조별 게임과 미니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순서가 곧바로 펼쳐져 요란한 조별 구호와 파이팅 소리로 떠들썩하게 진행됐다 . 간간히 엉뚱한 실수가 폭소로 이어지면서 서로의 간격이 좁혀졌다 . 한발로 오래 버티기 등 대부분 몸을 사용하는 게임이어서 호응도도 높았다 . 처음 참여한 신입생들이 동기는 물론 선배와 더 친해져 좋았다며 이번 MT 주제처럼 불타는 금요일이 됐다고 말했다 . 85 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33 명이 신입생이었다 .

2018 학년도 첫 학부모기도회 열려

우리대학 , 혼탁한 세상 속 마지막 파수꾼

▲ 기도회 마치고 학부모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 (오른쪽 첫 번째 김영선 회장 , 이광삼 목사)

2018 학년도 첫 학부모기도회 (회장 김영선) 가 29 일 저녁 밀알관 2 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학부모 기도회에서는 신 · 편입생의 학교적응 , 학우들의 건강과 학업성취 , 자율개선대학선정 등 여러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간구하였다 . 또한 국가와 민족의 평안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평화정착을 염원했다 . 마지막으로 자녀의 지혜와 건강 그리고 학업을 놓고 기도하였다 .

기도회에 앞서서 이광삼 (교목) 목사가 ' 응답 '(왕상 18:36~40) 으로 말씀을 전했다 . 엘리야가 응답을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도록 간구하고 간구하였다 .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호소해 응답의 주님을 함께 경험하자고 말했다 .

개강과 함께 처음 열린 기도회는 21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 우리 대학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파수꾼인 걸 확인한다며 향상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혀 주었다 .

김영선 회장이 더 많은 학부모가 기도회에 나와서 자녀사랑의 마음을 간구하기를 희망하였다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 시에 열리며 다음기도회는 4 월 26 일이다 .

제 34 대 하나총학 출범

진예은 회장, 행복한 공동체 지향

▲ 강우정 총장으로부터 총학기를 건네받고 있는 진예은 총학회장

제 34 대 하나총학 출범식이 6 일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진예은 회장 (사복 4) 은 취임사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총학을 지향하겠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되도록 진정 다해 섬기는 총학이 되겠다" 고 다짐했다. 진 회장과 임원진 20 명이 단상에 올라 1 년간 하나총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가겠다며 인사하였다.

제 33 대 총학의 장석범 부회장은 이임사에서 하나님 품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준 하품 임원진들과 격려해 준 학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우정 총장은 제 34 대 하나총학과 학교가 지향점은 동일하다며 공동체를 위해 멋진 역량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진예은 (사복 4) **▲부회장** 황견고 (성서 4)
▲총무 김인석 (성서 4) **▲회계** 유지수 (사복 3) **▲서기** 임사라 (사복 4)
▲대외협력부 부장 유윤상 (성서 4) **▲차장** 이동준 (컴소 3) **▲차장** 허은희 (사복 2)
▲언론기획부 부장 김석원 (컴소 3) **▲차장** 안소희 (영보 3) **▲차장** 김현영 (사복 2)
▲열린복지부 부장 김선민 (사복 3) **▲차장** 이인재 (사복 3) **▲차장** 박예성 (컴소 2)
▲예배선교부 부장 김대진 (성서 3) **▲차장** 이영현 (사복 3) **▲차장** 정소연 (성서 3)
▲행정지원부 부장 이승화 (사복 4) **▲차장** 신예진 (성서 3) **▲차장** 박예은 (사복 2)

2018 학년도 1 학기 장학수여식

학부 209 명에게 3 억 1 천만 원 지급

▲ 강우정 총장으로부터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증서를 수여받는 유윤상 학우

2018 학년도 1 학기 학부 장학수여식이 7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학기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학우는 전체 209 명이며 3 억 1 천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영예의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에는 4.3 만점을 받은 유윤상 (성서 4) 학우가 차지하였다. 이반석 (성서 3) 학우 등 40 명이 우수성적장학을 받았다.

최우수, 우수, 신입생성적장학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최우수성적장학** ▲유윤상 (성서 4)
□ **최우수성적장학**
◇성서학과 ▲이나현 (2) ▲이반석 (3)
◇사회복지학과 ▲김소영 (2) ▲이종석 (3) ▲신솔 (4)
◇영유아보육학과 ▲이나라 (2) ▲정유경 (3) ▲장예솔 (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문진우 (2) ▲김혜원 (3) ▲김종모 (4)
◇간호학과 ▲김정연 (2) ▲이한빈 (3) ▲백하은 (4)
□ **우수성적장학 (2 등 / 3 등)**
◇성서학과 ▲김채현 (2) ▲안소영 (2) ▲김영목 (3) ▲곽호빈 (3) ▲정서인 (4) ▲조진흥 (4)
◇사회복지학과 ▲이혜미 (2) ▲이형진 (2) ▲이동민 (4) ▲채은혜 (4)
◇영유아보육학과 ▲김세연 (2) ▲이혜원 (2) ▲장선주 (3) ▲김혜선 (3) ▲이예림 (4) ▲김태영 (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조종운 (2) ▲윤준용 (3) ▲이유빈 (4) ▲김민호 (4)
◇간호학과 ▲김인희 (2) ▲김찬영 (2) ▲윤가형 (4) ▲정은경 (4)
□ **특별성적** ▲황지희 (성서 4)
□ **신입생성적장학**
◇성서학과 ▲박찬혁 ▲한수진 ◇사회복지학과 ▲김수경 ▲지예은
◇영유아보육학과 ▲공은서 ▲김세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장홍엽
◇간호학과 ▲박서희 ▲허민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목실장 강규성 목사께서 지난 달 말 모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간곡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말 할 것도 없이 이번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취지의 기도요청입니다.

우리대학은 3 월 27 일 자체평가보고서를 진천에 있는 한국교육평가원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난 6 개월 동안 30 여명에 달하는 교수, 교직원들이 말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하고 자료들을 교육부 요구에 맞게 정리하는 분들만 그렇고,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전 교직원이 달라붙어 애를 썼습니다. 기본 보고서는 140 쪽으로 제한 되어있지만 증빙자료는 493 종에 어림잡아도 4000 쪽은 족히 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교육부가 아닌 하나님께 보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였지만 자랑스러운 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 건 「복음전도자」 양성대학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올 곧게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문을 강규성 목사가 인용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잘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빌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내 놓을 것이 있다면 우리대학은 여전히 (성서라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에,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사는 것 입니다. (단 9:16–19)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번 평가에 참가하는 160 여개 대학 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대학이 됩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했다면 평가 결과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일 뿐입니다.

직원 컬럼
이호섭 대리(예비군 중대장)

용기있는 고백

최근 미투 (ME TOO) 의 용기 있는 고백들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계, 종교, 교육계, 정치계, 연예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모습을 겹겹이 벗겨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미국의 미투운동 이전에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계 중심으로 문단 내 성폭력 등의 범죄를 고발하는 캠페인이 진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된 "미투"는 지난 과거의 작은 외침과 더불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미투 (ME TOO) 운동은 SNS 에 "Me Too(나도 그렇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0 월 초 처음 뉴욕 타임지에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 추문 보도는 그저 할리우드 유명인의 흔한 스캔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SNS 를 통한 여배우, 여직원들의 잇따른 폭로가 더해진다. 영화배우 앨리사 밀라노는 성적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자신의 트윗에 "미투"라고 써달라는 제안으로 이어지며 순식간에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불과 24 시간 만에 리트윗수 50 만 건을 넘으며, 성폭행 경험담을 폭로한 이들은 8 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인, 연극 연출가, 영화배우, 정치인, 연예인 등이 거론되며 파장은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많은 피해자의 침묵이 존재하며,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더 큰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이다. 오래된 사회 병폐가 바로 잡히는 날 더 나은 미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 미투운동이 우리나라 전반에 퍼져있는 성 피해의 만행을 밝히고 다시금 건전한 성 문화 사회를 위한 첫걸음 되었으면 한다.

교수 컬럼
김형미 교수(영유아보육학과)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난해 만나 교제하던 사람과 2018 년을 시작하자마자 결혼하고 이제는 여느 부부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되도록 조용히, 소박하게, 방학 중 간단히 결혼하고자 많은 일들을 간소하게 해나갔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일에 집중하다 주말에 이런저런 일을 한꺼번에 해내느라 혼잡한 교통 상황을 뚫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어른께 약혼자와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축하 말씀과 덕담을 해주시다가 어르신은 점잖게 목소리를 낮추더니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결혼 전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란다. 아무리 바빠도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진정한 결혼 준비가 될 거라 하셨습니다. '나는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 '나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남편, 아내)이고 싶은가?', '나는 결혼생활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이를 꼭 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 기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왔다며 나는 자신만만하게 A4 용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흘러도 제대로 된 문장 하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상념에 헤매다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려 하지... 묻고 또 물어 얻어낸 대답은 삶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로 살기 위해 결혼해요.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까... 배우자를 보내 달라고는 열심히 기도하고서 정작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에 게을렀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작은 일에서도 제 가정에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예민함을 내려주세요 결혼 생활을 위한 인내심과 감사하는 마음도 청합니다.

성찰에 성찰을 거듭하여 A4 용지 가득 쓰고 나서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 유아교사처럼 '준비됐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야 '준비 됐어요~' 라고 답할 수 있으리라.

외래교수 컬럼
최미정 교수(기초교육원, 학술적글쓰기)

보는 것의 가치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하늘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하늘을 사고의 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의미 없고 단조로운 우연들의 연속으로만 본다. 그런 흔해 빠진 현상을 1 분이라도 눈여겨 보거나 감탄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영국의 미술 평론가이자 사상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사물의 아주 작은 특징에도 유난히 민감했다는 그는 아름다움을 제대로 소유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것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나무와 꽃과 새와 같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모습을 잘 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잘 보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풀꽃」)고 한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창의적인 사고 또한 잘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잘 보다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휘슬러(James Whistler: 1834–1903. 미국 태생의 영국 화가)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 영국에는 안개가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세상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요즘은 잘 본다는 것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거리에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변 세계와는 철저히 차단된 채 거리를 걷는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들이 넘쳐난다. 이들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아지자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우리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번 학기 저에게 주어진 과목은 목회학 총론입니다. 작년 강의가 목회학 리더십인데 강의 내용이 겹치지 않고 생생한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제사장이듯 목회학에서 중요한 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그 방점이 찍힙니다. 목회자는 스타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젖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젖었기에 설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80 년대 '샤프' 가 부른 연극이 끝난 뒤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적이 있나요 음악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 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라는 가사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연극배우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하고 싶다고 다 되나요? 하고 싶은 열망과 갖고 있는 재주와 차이 때문에 그만 두긴 했지만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아마 골목 어딘가에 버려진 곰인형처럼 있었을 겁니다.

어떤 연기자는 자신의 연극이 끝나고 관객의 뜨거운 갈채와 함께 막이 내리면 언제나 분장실에 들어가 통곡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내어 통곡을 한 겁니다. 이유는 관객의 갈채가 자신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고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받쳐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나는 왜 연극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무대 위 그림자로 살아야 하나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대중의 주목은 갈증으로 이어집니다. 인기는 짠물을 먹는 것이고 바다물이 해변에 남긴 거품 같은 겁니다. 목회자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의 전달자이지만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지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순간부터 위치 상실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서대학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신대원생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교회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해 학교를 풍요롭게 하고 각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승희 전도사, 모교사랑 210 만 원 기탁

도서관에 'Bibleworks 10.0' 5 Copy

올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승희 (30 회) 전도사가 원어 (原語) 분석 프로그램 'Bibleworks 10.0'(42 만원 상당) 5Copy 를 도서관 컴퓨터에 탑재할 수 있도록 210 만원을 기탁해 주었다. 이 전도사는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복음에 충실한 신학교육을 해준 모교" 에 감사하여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승희 전도사는 자신의 신앙의 모태가 된 중앙성서교회 (강태국 목사 개척) 에서 예수를 영접하였고 2015 년 한국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공부하며 설립자이신 강태국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새삼스레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승희 전도사는 지난 2 월 학위수여식에서 이사장상 (賞) 을 수상하였다.

성서학과 BRC, 선배 섬김이의 수고로 가능

이주은 학우 , “섬김이는 페이스 메이커”

▲ 김은호 교수반에 소속된 섬김이들이 수업 시작에 앞서 기도하는 모습

2018 학년도 새학기 개강일인 5 일 아침 8 시 , 성서학과 새내기들의 BRC(Bible Reading Class) 첫 수업이 복음관 (301, 401 호) 에서 열렸다 . 김은호 (A 반), 이민규 (B 반) 교수 지도로 각 35 명씩과 선배 섬김이 7 명도 함께 자리해 성경을 읽고 있었다 .

5 년째를 맞는 성서학과 BRC 에는 선배 섬김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 올해도 14 명의 선배가 섬김이를 자청했다 . 이들은 매일 아침 6 시 ~7 시쯤 자신의 조원을 카톡으로 깨워 체크하고 다독이면서 학교로 향한다 . 수업 15 분전 도착 , 경쾌한 찬양송을 틀고서 강의실 분위기를 올린다 . 때론 멋지고 깜찍한 율동을 선보여 후배 입가를 미소짓게 한다 . 시작 5 분전 , 7 명이 모여서 하나님 보화가 모두의 마음에 담겨지도록 기도하며 조원들과 시작한다 . 수업 후에도 후배 한명 한명을 살펴 상담해주며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 . 새내기 이승용 학우는 선배들의 수고가 더할 수 없이 감사하다며 조별 모임에서 의견 나누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

3 년째 섬김이로 헌신 중인 이주은 (4) 학우가 " 우리는 후배를 이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이다 .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이며 후배들에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 고 말했다 . 권산 (2) 학우는 강원도 원주에서 통학한다 . 새벽 3 시 30 분 일어나 첫 기차를 타야 수업시간에 맞출 수 있다 . 자기의 작은 모습이 후배에게 도전을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는 말했다 .

성서학과 BRC 가 이 같은 선배 섬김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학과 단합은 물론 선후배를 끈끈히 연결해주는 견고한 말씀의 울타리로 거듭나고 있다 .

성서학과 , 신편입생 소속 목회자에게 감사편지

준비된 영적지도자 양육 의지 전해

새 학년 출발에 맞춰 성서학과에서는 유정선 학과장 명의의 감사편지를 4 월 2 일 일제히 발송하였다 . 대상은 학과 신편입생을 추천해 준 소속 교회 목회자이다 .

내용은 교회의 건실한 학우를 우리 성서학과에 보내 주어 감사하다 . 우리대학은 밀알정신을 지닌 복음전도자 양성을 목적한다 . 성서 전문지식과 교회현장의 실천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영성과 인성 닮은 사역인 배출에 힘을 다할 것이다 . 성서학과장으로써 한국교회 미래를 잘 이끌도록 학업과 신앙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 학과장과 책임지도교수의 명함까지 삽입 , 사후 관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 처음에는 성서학과 전체학우들의 교회 목회자에게 , 올해는 신편입생의 목회자에게 보낸다 .

교회 목회자들은 학과장 서신을 받고서 학교의 관심과 의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 .

따릉이 자전거 , 일립관 앞 15 대 설치

▲ 일립관 앞쪽에 설치된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

서울형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교내에 설치된다. 30일 현재 일립관 앞에는 15대의 따릉이를 고정시켜 줄 거치대 설치와 사용안내판까지 완료된 상태다. 전기인입선 공사가 마무리될 4월 중순쯤이면 자전거가 들어오게 돼 학우들이 사용할 수 있다.

따릉이 거치대를 살펴보던 한 학우는 자전거를 이용해 당현천과 중랑천 그리고 한강까지 산책할 수 있어 기쁘다. 학습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적극 반겼다. 성서학우는 물론 인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따릉이는 모바일과 연계한 무인대여시스템이며 유료로 사용한다. 정기권과 일일권이 있으며 1시간 1,000원 기준으로 일주일, 한 달 사용권 등 선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따릉이를 도입했다.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 2017년 10대 뉴스' 1위에 따릉이가 선정 될 만큼 사용이 빈번하다.

따릉이 홈페이지: www. bikeseoul.com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45

눈물꽃

임경미

우리에겐 마르지 않는 물샘이 있어
언제나 우리 눈은 젖어 있어요

잔잔히 스며오는 맑은 물들을
오늘도 병에 담아 님께 올리니

하늘 정원 너른 자락에 골고루 뿌려
수많은 기도별을 피워내네요

반짝이는 기도별이 밤을 밝히니
어두웠던 깊은 밤에 새벽이 와요

스러졌던 마음들이 옷을 동이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짐을 하니

굽어졌던 무릎마다 새살이 돋아
수많은 기도꽃이 피어나네요

'눈물 병'은 눈물을 담아두는 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크기는 7~20cm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고 몸통은 호리호리하며 입구는 깔때기 모양으로 눈물을 받기에 적합하였다. 집안이 부유한 경우에는 얇은 유리로 만들어진 병을, 가난한 사람들은 토기로 만든 병을 사용하여 그들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아내곤 했다.

마음을 움켜잡으며 통곡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눈물 병에 담겼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간절한 기도가 눈물 병에 고스란히 담겨 새벽을 흔든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깊은 어두움에 새벽이 찾아왔다. 그래. 일어나 보자. 굽어졌던 무릎에 힘을 실어 다시 또다시, 다시 또다시!

건강상식 _ KBU 보건실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비염은 알레르겐이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오면, 히스타민이라는 천연 화학 물질이 체내 세포에 의해 방출, 코 안쪽에 점액이 생성되고 부풀어 오르며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 **원인**
유전, 환경요인(대기오염의 증가나 습도의 저하나 저온도), 스트레스, 집 먼지 진드기, 집 먼지,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 꽃가루, 담배, 식품 등이 있다.

◎ **증상**
맑은 콧물, 코, 인후, 귀나 입천장이 심하게 가렵고 재채기가 나온다.
한쪽 또는 양쪽 코가 막힘(귀도 막힐 수 있음), 눈이 붉어지고, 부으며, 눈물이 나고 가렵다.

◎ **예방수칙**
– 손 씻기를 잘하고 금연, 담배 피는 옆에도 가지 않습니다.
– 실내 청결을 유지하며,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한다.
– 공해나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

대학어린이집

▲ 교사와 학부모들이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학부모와 집단면담

지난 8~9 일 이틀간 학부모와 집단면담을 가졌다. 반별 운영 방안과 적합한 연령별 특성화 프로그램 안내로 가정의 관심과 협력을 함께 도모해가는 시간이다.

영아반은 노래를 활용한 운동능력 증진과 기본생활습관을 도와줄 특성화프로그램 소개로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유아반에서는 그림책을 사용해 유아인성교육과 초등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 어린이집과 가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집단면담이 교사와 학부모가 새로운 정보 공유와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되었다. **[은혜반 김현애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개관 25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황일상 목사

개관 25 주년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12 일 개관 25 주년을 맞아 성원교회 황일상 목사(월계복지관 운영위원)를 초청, 감사예배를 가졌다. 예배에서 황 목사는 복지관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목적과 의미를 환기시키고 주님 영광을 높이는 일꾼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들은 특송으로 소명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다.

12 일 ~17 일까지 개관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1,800 여명에게 떡 나눔도 실천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개관 축하 떡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동반자 역할을 잘 수행해 준 복지관에 대해 신뢰와 애정을 담은 덕담으로 화답해 주었다. 앞으로도 월계복지관은 지역 섬김과 사랑실천 노력을 더해갈 것이다.

[지역사회조직팀 오윤아 과장]

꿈빛어린이집

▲ 그림동화책을 보이며 어린이집 적응을 돕고 있는 학부모

신입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새 학기 시작되는 지난 3 월 꿈빛어린이집은 2018 학년을 함께 할 새 가족을 맞이하였다. 신입유아들은 만 1 세(초롱)반 5 명, 만 2 세(민들레)반 9 명, 만 3 세(나리)반 5 명, 만 4 세(백합)반 8 명 총 27 명이다. 새 가족이 된 유아들의 환경적응을 돕기 위해 3 월 한달간 연령과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주는 엄마와 함께 아직은 낯선 공간인 교실에서 지내며 적응시간을 가졌다. 2 주째는 점심까지 먹으며 점차 늘려갔고, 3 주째에는 낮잠 자고 귀가하도록 시간을 조정해 적응이 잘 이뤄지도록 배려하였다.

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영유아들 표정이 점차 밝아졌고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도 대견스러워하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민들레반 박연희 교사]**

성서대학교회

▲ 영유아 유치부 교사 대상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방 개강 연합예배

성서대학교회 장년부는 9 일 사랑방 개강연합예배를 가졌다. 2018 년 사랑방은 예배와 말씀읽기에 중점을 두고 방원들의 영적 성장에 힘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였다. 이밖에 4 월 16 일(월)~18 일(수) 말씀성회(강사 : 이동원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부흥에 전환점이 임하여지길 염원했다. 이를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릴레이 금식기도로 성회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기쁨으로 새기자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와 함께 교회학교가 3 월 ~4 월까지 각 부서별 5 회로 이루어진 교사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배움을 가졌다. 교회학교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신앙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의 교회일꾼 양육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 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클래식 뮤지컬 '페페의 꿈'을 재미있게 관람하고 있는 유아들

클래식 뮤지컬 '페페의 꿈' 관람

지난 27 일 백병원어린이집 만 3~4 세 유아들이 중랑구민회관에서 공연중인 ' 페페의 꿈 ' 클래식 동화뮤지컬을 관람하였다. 새롭게 단장된 교실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진급한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는 첫 번째 공연이다. 공연내용에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 푸른반 ' 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공연자체가 흥미와 재미로 가득해 집중도도 함께 올랐다. 공연관람을 다녀온 후, 교실에서 다시 관련 내용을 극놀이로 진행, 어린이집 생활 자체가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격려하였다.

학부모들도 " 공연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한층 의젓해진 것 같다 ", "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는데 무척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다 " 라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푸른반 이예은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들이 훈육주제 집단상담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보육교직원 훈육주제 집단상담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 인권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훈육주제 집단상담을 보육교사 대상으로 2 회기 (20, 27 일) 가졌다.

1 회기는 개인의 고유 특성과 역할 정체성이었는데 영유아 인권 존중을 위해선 보육교사의 자기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 회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공감을 이뤄갔다. 이밖에 급식시간, 낮잠시간 등 영유아의 돌발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향후에도 원장 인권교육, 보육교사와 부모 대상의 상담과 교육, 영유아 대상의 심리검사와 놀이치료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양육지원팀장 장수진]**

상계5동어린이집

▲ 각 반별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교사와 협의중인 학부모들

함께 하는 보나 티타임 : 반별 집단 면담

지난 22 일, 27 일, 29 일 사흘간 만 5 세반을 시작으로 만 1 세반까지 각 반별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각반 별 운영사항 및 교육관련 궁금한 점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총 51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월별 운영과 야외 관람 행사 및 부모참여 가능 프로그램 등을 질문하며 소통을 이어나갔다. 교육프로그램을 인용해 자녀 지도에 사용 가능한지 등 참신한 내용도 일부 거론되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의 특이한 습관과 주의점 등을 담당교사에게 알리며 참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학부모가 " 연령대가 비슷한 같은 반 어머니와 만나보니 정보교환 기회를 갖게 됐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 " 고 말했다. **[초록풀잎반 홍옥주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챙겨 새로운 교실로 옮겨가고 있다.

2! 4! DAY

2018 년 새학기를 맞으며 영유아와 함께하는 '2! 4! DAY' 를 진행하였다. '2! 4! DAY' 란 새로운 반을 옮겨가는 행사이며 첫 등원 후 아름다운 세상 동요에 맞춰 해당 교실로 이동하는 걸 말한다. 영유아가 스스로 소지품 공간을 선정, 정리해가며 권리와 자존감을 갖도록 해주려는 목적이다. 자녀가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가 " 아직 어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리를 선정하는 모습자체가 대견하다 ." 고 웃음을 보였다. 교직원들도 " 교사가 신발장과 개별장 위치를 선택해주었다면 이제는 아동이 직접 선택하는 권리 존중의 작은 시작이 된 것 같다 " 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늘사랑어린이집은 일상생활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섬김을 다하는 교직원이 될 것이다. **[늘사랑 한보연 교사]**

충무어린이집

▲ '내가 만드는 알록달록 코끼리'를 주제로, 알록달록 코끼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색칠하고 있다.

장애인식교육

지난 21 일 만 3 세 ~5 세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가졌다. 중구장애인 복지관 소속 복지사가 장애인식에 맞는 놀이와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먼저 ' 알록달록 코끼리 엘모 ' 동화를 감상한 뒤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록달록 형상의 코끼리 모습을 색칠하고 색깔이 달라도 코끼리가 여전한 것처럼 모습이 약간 달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 의식을 바로 잡아 주었다.

유아들은 장애에 대해 처음엔 " 우리랑 다른 친구들이에요 ." 라고 말했다. 교육 후 다시 물으니 " 모습은 다르지만 좋은 친구가 되는 건 문제 없어요 ." 라며 인식에 변화를 보여줬다. 유아들에게 사람의 소중함과 장애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심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변윤영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2.950.5516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강 진(총장)	1,650만원(운영)	유정웅, 유계선(재미교포)	1,200달러(운영)
선교기부금	1,170만원(선교)	첼튼햄장로교회	1,000달러(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60만원(운영)	교수부(교수회)	100만원(장학)
Korean Bible Funds	5,700달러(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이승희(30회 동문)	21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고성호 고아라 민정은 신은숙 이명호 장윤국 주영덕 진태임 채민지 최서희 최선아

2구좌 이충재

3구좌 강은정 고하은 권서영 김가희 김다예 김대수 김동원 김세련 김수진 김아란 김은아 김주은 나예원 남수연 박민송 박수지 박예인 양민희 오예륜 오은애 이도은 이예은 이예지 이은혜 이지수 이지향 전병민 전영이 진성지 진윤선 최선아 최윤정 한보미 한 솔 황예린

5구좌 박지혜 송우주 윤보은 조아라 조연정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신영옥

2구좌 김현숙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문지예 민경은

2구좌 곽수영 김동준 유성현 한상만

3구좌 김영숙

5구좌 김성호

10구좌 김경숙 김승호 김정원 김현광 안현미 유정선 이소정 임지영 임지영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3구좌 김정숙

20구좌 김성경

부설기관

1구좌 김태연 차도영

3구좌 권효진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변송이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이다솜 임미숙 임보나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정혜란 최하나 탁지혜

5구좌 여미희

10구좌 지주나

15구좌 안미희 차 건

수원교회

2구좌 이승종

단체 및 기관

1구좌 행복한교회

5구좌 삼일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시내 민이삭 이아람 무 명

1만원 강나경 강명희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은해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경리 김경수 김경수 김경혜 김남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미숙 김민겸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보민 김보희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세현 김순화 김승훈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정례 김종환 김지선 김지윤 김지환 김진영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하라 김하은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 철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 정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영주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용준 박윤복 박은선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박효빈 반해빈 반해성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초롱 서 현 서희영 성은숙 성한나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영자 송유지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범수 신상용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오채엽 왕지희 우승연 원윤희 위기백 유미정 유성실 유소담 유영진 유정례 유주홍 유지영 유지혜 윤영원 윤예서 윤정숙 윤지혜 윤혜자 이경선 이경희 이광석 이규숙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명화 이미숙 이미정 이병주 이병현 이보아 이삼열 이상용 이상욱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신재 이아름 이연신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윤성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림 이혜선 이혜윤 이환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영국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석찬 장세진 장순호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다운 정선도 정성헌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영 정인철 정지용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태환 조희진 주민자 주영덕 지영환 진병원 진은재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기부자 명단

최민영 최사라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아 최종운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탁윤석
하수현 하진우 한경순 한아름
한영신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홍진기 황선명
황승호 황인숙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더 신에스더
왕펑레이나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강재현 고윤정 곽연희 구본철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경희
김기옥 김동길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민호 김봉철
김샛별 김성애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승희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재현 김중재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태분 남계일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영희 송정화 신예희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경희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진희 이춘석 이충재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장혜원 전영희 전택복 정성종
정주영 조성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창영 최호정
하지혜 한민수 한상장 한정은
황보혜영

3만원 공복순 권오규 권정완 김다영
김동교 김동원 김보라 김슬기
김종숙 김지애 김지혜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성숙 석지희 설보경
송성은 양광석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유예진 윤가영 이경석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주연 이지수 이혜민 임소담
임유미 장영훈 전지혜 정선희
정슬기 정윤주 조신애 주혜원
최광희 최소린 태지선 홍예지
황미란 황영숙

4만원 김예은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윤정

5만원 강동란 경민정 김동관 김세영
김연수 김종남 남희경 목선영
박광필 배성준 송복순 송현미
양원석 이계훈 이길순 이동혁
이부호 이지은 임연식 전은진
조아라 조유진 주진우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황성경

6만원 박요셉 유선미 정동주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종우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인영
장명헌 최대만

100달러 김경화

30만원 김홍구

50만원 신호정

100만원 이례장학

210만원 이승희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박지영 양주향 최길창 최은옥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권문기 권순길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성자
김윤옥 김은이 김창현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방지연 백해송 서이현
성순애 송기운 송순덕 신연정
신영옥 안소연 염인형 오미선
유양숙 윤운섭 윤효심 이금란
이누리 이동기 이민화 이용철
이원혁 이정숙 이혜진 임동화
정창금 최상모 최인호 홍경희

2만원 공진희 김복녀 박혜숙 안혜경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정형철
최혜진 허 윤 홍은선 홍진옥

3만원 김민지 김성순 김윤정 김재임
남세영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오수진 조대의 채형찬 최자경
홍석화

3만5천원 권 산 조진흥

5만원 이소영 이지은 허용철

10만원 박연자 이상학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민경 강승현 강신애 고성산
구동식 구만길 권관희 권하람
권하영 김미선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영광 김영찬
김은실 김춘하 김하율 김형중
김 희 도영훈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성범 박주양
서광철 안병례 안수자 안효영
양승원 유영현 이경희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온
이지희 임원은 장경순 장새순
장석윤 장수아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보미 정은상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차이슬
최난영 최민주 최은비 최혁인
하희수 한시연 한종철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곽수영 권경애 김남준
김동준 김예은 김인화 김장호
김하은 문행자 박순남 박예진
박이삭 박일립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신동민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이지근 이지훈
임정란 임현필 장길정 장영자
장지순 정영은 정찬욱 진달래
최지연 최형찬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순의 김영숙 김은영 민희숙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염계향 유다운 유미나 유수연
이소연 임경미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4만원 김덕원 신금주

5만원 곽규상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중식 김중완 김태성 김현동
박현희 안미란 이광삼 이복남
임환석 장정순 최사랑 최지은

6만원 권경만 양희정 이성아 이은광
장성희

10만원 강규성 고미숙 김경숙 김도경
김미정 김승호 김웅기 김은호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유하나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2만원 박태수 이강동

13만원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희수 신지수 최영태

20만원 김성경 김창원 박 선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30만원 최선희

300달러 강일로

60만원 강정원 김정원

5,714달러 KBF

1,646만원 강우정.강진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주은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오윤아 윤보배 이민희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한보연
허성보

2만원 김은비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강예은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수진 김은솔 김현애
김혜진 남윤주 박미애 박선경
박진희 박천순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임보나 임지혜
장나혜 장수진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정재연 정혜란 조은채
최하나 한민희

5만원 강진아 박연희 서영숙 이지연
전은재 조지선

10만원 김승옥 이인경 정나나 조동진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차 건

25만원 신영자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조예림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배 윤.김현진
한미희

20만원 동광교회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1만원 이광열 이반석 장옥경

2만원 장선규

3만원 이훈호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10만원 삼일성서교회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1만원 강경혜 강선영 김경래 김경자
김나미 김다혜 김덕현 김민선
김배열 김애숙 김영숙 김영희
김원태 김유미 김윤선 김을열
김인영 김인자 김일선 김종아
김주혜 김지우 김지윤 김태근
김태연 김혜정 김희자 남윤주
두미옥 민영빈 박명자 박선옥
박인숙 박영한 박진석 박천순
박혜영 배경내 배숙희 성윤선
손경술 손진희 송형기 양순정
오경모 오경이 오경원 용정자
유 강 유상호 유일성 이관영
이길우 이대우 이대영 이대한
이상복 이선호 이소정 이영희
이유화 이임자 이정임 이정철
이주현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진호 임숙정 임현필 장근문
전하준 전해성 정갑순 정건웅
정나영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용수 조준희 지주연 최미숙
최정자 하명란 한성실 한정해
홍동숙 황서린 황정애

2만원 강규성 구영신 구현숙 권정숙
김문응 김정숙 김향순 김혜진
박선하 박온유 배은미 변경선
신양금 신인옥 안영숙 양천식
이노선 이상록 이승림 이윤봉
이홍섭 임성일 장병호 전영희
정명수 정선희 조성민 조정선
최순남 최은희 홍재우

3만원 김봉춘 김영헌 김원태 김은미
김일선 박세건 양태환 이숙영
임용택 전명진 전명진 한진호

4만원 권태완

5만원 권경만 길용희 김성수 김현광
박세건 이상도 조혜경 최대만
최정권

30만원 김을렬

66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기병문 김미영 김상오
김일섭 이종은 홍성호

2만원 이승종

열방교회

1만원 강길자

2만원 열방교회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기부자 명단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우용식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김옥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원로 · 은퇴장로회
5만원 김종구 권사회 바울선교회
10만원 김윤규.신인자 송인숙 이혜선 현희철
12만원 황인돈.김순자
48만원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어재영 유숙자 유재란 차형미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정혜옥

평화교회
1만원 김광석 정순이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정영숙 황창선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계중앙교회
1만원 오혜숙 원 구 진경숙 진은숙 홍성일
2만원 김양례

일 반
5천원 권태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승애 김양권 김영주 김유진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진희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관헌 이나영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임화경 장명웅 장지화 정애자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원실 최은실 최인숙 최인순 최점숙 한민희 한상은 허창금 황영수
2만원 김계순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무 명 서병준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에스더
3만원 김미수 김한수 장문석
4만원 정형채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손삼수 신재명
192달러 강비앙카
30만원 박순정
1,200달러 유정웅.유계선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김포예수사랑교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트코리아/금곡광염교회/동신자원/문양교회/성복중앙교회/월계성서교회
3만원 꽃가람/다드림교회/새샘교회/신작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태광성서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나눔침례교회/삼일교회/수색감리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두리아이티/(주)아이앤유니/(주)이레E&C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상록교회/상일교회/서울예랑교회/오감발달연구소
14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구리성광교회/도봉성산교회/서부중앙교회
30만원 노아인터내셔날/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100만원 교수부
1,000달러 첼튼햄장로교회
117만원 선교기부금

소계 (2018.02.21~2018.03.20) 82,304,897

누계 (2018.03.01~2018.03.20) 28,960,827

대외협력실 **02-950-5517**